



## 비주얼 아티스트 노보 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항구

하이엔드 오디오 플래그십 스토어 오드ODE가 프리미엄 쇼룸 메종에 이어 두 번째 공간을 오픈했다. 복합 문화 공간 ‘오드 포트’의 개관을 기념해 타투이스트이자 비주얼 아티스트 노보NOVO가 개인전 <HOPE PORT>를 연다.

지난 6월 8일, 신사동 오드 메종 옆에 음악을 테마로 한 새로운 공간이 문을 열었다. 전 세계 하이엔드 오디오를 엄선해 국내에 소개하는 오드가 새롭게 선보이는 곳으로, 4층 규모의 건물에 쇼룸과 갤러리, 카페 등을 갖췄다. 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항구이라는 의미로 ‘오드 포트ODE Port’라 이름 지은 이곳에선 좀 더 캐주얼한 분위기 속에 오디오를 즐길 수 있다. 오드 포트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해 3층 갤러리 공간에서는 비주얼 아티스트 노보가 ‘항구’를 주제로 한 전시를 열고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오른편 전시장으로 시선을 돌리면 중앙에 놓인 나무 배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신념Belief’, ‘희망Hope’ 등의 네온사인을 두른 설치 작품은 새로운 곳을 향해 끊임없이 향해하면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작가의 철학이자 음악으로 떠나는 항해를 시작하는 오

드 포트를 상징한다. “작년에 한 페어에서 오드 대표님과 인연을 맺으면서 ‘포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쇼룸을 준비 중인 것을 알게 됐어요. 바다 사람들이나 항구를 주제로 한 제 개인전과 분위기, 콘셉트가 통하는 점이 많아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지난해 열었던 전시 <When I Was Young>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떠났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바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저 자신을 성찰했다면, 올해는 “당신의 항구는 어디입니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묻는 작업인 셈이지요.” 조소를 전공했지만 드로잉과 크로키 작업을 유독 좋아했던 그는 타투의 매력에 빠져 살아있는 캔버스 위에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쳐왔다. 근래에는 그림에서 받은 영감을 빈티지 아이템, 버려진 나뭇조각 같은 독창적인 오브

제로 입체화하는 작업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재료로 드로잉을 하고, 그 위에 네온 오브제를 얹어 설치 작품을 제작합니다. 하나의 작업 위에 새로운 것을 결합해서 색다른 하모니를 이뤄내는 거죠. 곳곳에서 발견한 아이디어와 우연히 찾은 소재들이 쌓여 저와 함께 발전해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시에 ‘소리’가 더해진 것은 저에게 무척 행운이네요. 또 다른 관계를 알게 해 준 셈이니까요.”

특히 덴마크 오디오 ‘달리Dali’는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주인공. 1983년 세계적인 오디오 장인 피터 링돌프가 개발한 이 제품은 ‘실제에 가까운, 타협하지 않는 소리의 전달’을 목표로 한다. “작업할 때 늘 음악을 틀어두는데 영화 <그녀에게> OST처럼 각기 다른 곡이 모여 있으면서도 잔잔한 멜로디가 반복되는 음악을 선호합니다. 달리는 이번 작업을 통해 만난 스피커인데,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더라고요. 본연의 소리를 자유분방하게 표현하는 이미지도 마음에 들고요. 익숙한 음악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어 흥미로웠어요.” 오드 포트에서 열리는 노보 작가의 개인전은 7월 8일까지 이어진다. 글 김수진 기자 사진 이기태 기자 | 취재 협조 오드 메종(512-4091)